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흐린강(濁り江)』 연구

- 소외의식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康允暻

2016年 2月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흐린강(濁り江)』 연구

指導教授 金 成 俸

康 允 暲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 年 2 月

康允暲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2月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II. 본론	
1. 메이지시대와 이치요	5
1) 시대적 배경	
2) 이치요의 삶	
2. 작품분석과 등장인물	15
1) 작품분석	
2) 등장인물과 역할	
3. 『흐린강(濁り江)』에 나타난 소외의식	21
1) 유년시절의 빈곤에서 오는 소외의식	
2) 타자의 시선에서 오는 소외의식	
3) 혈통에 의한 유전에서 오는 소외의식	
4) 소외의식의 극복양상	
III. 결론	42
IV.참고문헌	46

<국문초록>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흐린강(濁り江)』 연구

강윤경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김성봉

본 논문은 일본의 근대문학에서 최초의 전업여성작가라고 일컬어지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흐린강(濁り江)』 연구를 통해서 이치요의 소외의식을 고찰하였다. 『흐린강』이 쓰일 당시 일본사회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급속하게 서구문명을 받아들였고, 갑작스런 개방은 일본사회에 잔존해 있던 봉건제적 가부장제의 사상과 충돌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를 만들었다. 이치요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오리키(お力)’라는 여주인공을 통하여 이치요 자신이 경험한 가난과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소외의식을 『흐린강』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일본문단에 혜성처럼 등극한다.

서론에서는 이치요의 국내 선행연구가 여성성 억압에 중점을 둔 것을 살펴보고 이 범위에서 탈피하여 소외의식을 주제로 하여 쓰는 목적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본론에서는 메이지시대의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치요의 삶에서 소외의식이 형성되게 만들었던 사건들과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과 등장인물의 역할을 통해 『흐린강』의 구성과 줄거리를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치요가 경험하였던 유년시절의 빈곤의 경험에서 오는 소외의식, 유녀의 신분으로 양면적 삶을 살아가며 타자의 시선에서 괴로워하는 소외의식, 조부와 친부의 불우한 운명을 혈통에 의한 유전에서 오는 소외의식으로 분류하여 이치요의 소외의식을 입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치요는 자신의 운명을 혈통의 유전으로 오는 숙세관으로 자각하고 이 숙세관은 작가 이치요가 만년에 불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소외의식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하기 위해 작품 6장의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라는 대목을 통하여 여러 평론가들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논자의 의견까지 함께 논하였다. 주인공 오리키의 가난의 경험과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소외의식은 한 개인의 아픈 상처이면서도 자본주의 시작과 맞물린 당시 일본사회의 최하층민의 빈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4년이라는 짧은 학력이 주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하기노(萩の舎)에서 배운 일본전통의 고전학습은 당대 주류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류작가들이 쓸 수 없었던 소재와 테마로 이치요는 당대 최고의 여류작가로서 성공한다.

그녀가 이룬 문학사적 성취는 자신이 직면했던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개인의 고달픈 문제를 넘어서 이웃 공동체 하층민의 삶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고,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현실적 행동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후기작품들은 고풍적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의 빈곤과 근대화의 모순을 직시하며 리얼리즘의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한 것에 중점을 두며 마무리를 하였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일본의 근대문학 ‘천재여성작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메이지5년, 1872~1896, 이하 이치요라 칭함)는 도쿄출신으로 본명은 나츠코(夏子)이며, 호적명은 나츠(奈津)이다.

25세의 짧은 생이었지만 25편의 단편소설(미완성 4편)과 일기와 수필, 다수의 와카를 남겼다. 1892년 3월, 처녀작인 『밤 벚꽃(闇櫻)』을 문예지 『무사시노(武藏野)』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타계 직전 와다 요시에(和田芳恵)가 명명한 ‘기적의 14개월’이라는 기간<sup>1)</sup>에 『선달그믐달(大つごもり)』(1894), 『키재기(たけくらべ)』(1895), 『호린강(濁り江)』(1895), 『십삼야(十三夜)』(1895), 『갈림길(わかれ道)』(1896), 『나 때문에(われから)』(1896) 등 후세에 전해질 보석같은 작품들을 남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들어 페미니즘 운동과 연동하면서 이치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2004년 11월 1일 새롭게 발행된 오첸엔권 화폐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sup>2)</sup>

『호린강』이 쓰일 당시 시대적 배경은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숨을 쉴 겨를 없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국회의 개설에 의한 근대화의 첫발을 내딛었던 시기였다. 동시에 흥정헌법(欽定憲法), 교육칙어(教育勅語)<sup>3)</sup>의 발표에 의한 근대화의 과정은 일본적 봉건성이 잔존해 있던 상황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sup>4)</sup>

---

1) 이현주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작품 속에 나타난 원망의 정서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 재인용  
2) 이치요를 오첸엔권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선정한 이유를 보면 ‘먼저, 21세기의 일본사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성의 활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동참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5천엔권에는 전후 처음으로 여성의 초상으로서 히구치 이치요를 채택했습니다. 이치요는 여자 혼자의 힘으로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과 화목을 이루면서 메이지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절하였지만 짧지만 빛나는 일생을 보낸 이치요는 여성 사회진출의 선구자로서 21세기의 일본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小泉)내각 메일매거진 제63호 2002년 9월26일-  
윤혜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화』 궁미디어 2013 p.95  
3) 군주에명치 의해 제정된 헌법, 군정헌법이라고도 함. 明治憲法이 교육에 관해 내린 칙어, 후에는 정부의 교육방침을 나타내는 문서가 됨.  
4) 松板俊夫 『鑑賞日本現代文學2 樋口一葉』角川書店 1982 p.5

『키재기』와 함께 이치요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호린강』은 가난을 경험한 작부의 어린 시절 상처를 통하여 당시 일본사회의 하층민의 빈곤, 그리고 유곽의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 집안에서 내려오는 혈통에 의한 불운한 운명에 괴로워하는 유녀 오리키(お力)의 이야기이다.

이치요의 작품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호린강』은 내용의 불투명함과 난해함으로 인해 집필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결함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모리 오가이(森鷗外)는 『메사마시쿠사(めさまし)草』에서 적절한 균형을 얻지 못하고 독자적 짐작 범위가 너무 넓어 좋지 않다고 평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호린강』의 해석이 모호하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외다리나무를 건넌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메이지시대 당시 하층민들의 빈곤으로 인한 소외의식과 주인공 오리키 가게의 불운한 삶을 통해 오리키가 자신의 소외의식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지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이치요의 일본 측 선행연구를 보면 1980년대를 지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 연구자를 보면 마쓰자카 도시오(松阪俊夫)의 『樋口一葉の研究案内』를 시작으로 유치 다카시(湯地孝)의 『樋口一葉』, 시오다 료헤이(塩田良平)의 『樋口一葉の研究』, 와다 요시에(和田芳恵)의 『近代文學鑑賞講座3』와 같이 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전기(伝記)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치 다카시(湯地孝)는 『樋口一葉論』에서 “유려하면서 아픈 애수를 머금은 가련의 문학으로 그 기저에 이치요의 의지가 있다. 성실하게 인생을 바라보며 눈에 비쳐진 것들을 충실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인정(人情)적 문학으로 그 가운데 여성다움의 주관을 세우고 있다”<sup>6)</sup> 라고 기술하고 있다.

오기하라 게이코(荻原桂子)도 그의 논문에서 이치요 문학의 가치를 평하면서 이치요가 처해있던 독특한 사회상황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치요

5) 이은실 「히구치 이치요의 『니고리에』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 2009 p.2 재인용

6) 湯地孝 『樋口一葉論』 至文堂 1926 참조

문예에서 최대의 매력으로 구현되어 그녀의 문체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그녀는 신·구시대의 경계에 서서 문어체(文語體)와 구어체(口語體)를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데 성공하고 그것은 메이지시대라고 하는 혼란의 시기에 있어 근세적인 가치관과 근대화적 가치관의 충돌 가운데 어떤 식으로 자아실현을 이룩해 낼 것인가 하는 이치요 자신의 자기실현화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8)</sup> 이것은 이치요 문학만의 가치는 근대화의 완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이처럼 전기적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도 서정주의적이면서도 허무적, 사회주의적 시각으로의 재조명, 문명비평적 접근등 여러 방면에서도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는 1976년 박경훈의 「樋口一葉の研究：濁り江を中心に」을 시작으로 하여 박나미, 조혜숙, 노미림<sup>9)</sup>등이 이치요가 일본 화폐 오천엔권에 등장하는 시점으로 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의 전기(伝記)적 연구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작품연구 중심으로 하여 여성관과 여성성, 여성의 의식전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치요의 후기(後期)작품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전기(前期)작품에 비해 후기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작가 박영선에 의해 번역이 활발히 진행된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는 이현희<sup>10)</sup>의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문학의 여성상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현희는 여러 작품의 인물상을 연구하여 이치요가 작품에 나타내려고 했던 여성상은 첫째,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상, 둘째, 현실로 부터 일탈하는 여성상, 셋째 신분적 한계를 운명으로 하는 여성상을 나타내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치요의 후기작품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작품으로는 『키재기(たけくらべ)』 『흐린강(濁り江)』 『십삼야(十三夜)』 순위로 연구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치요연구가 메이지시대 여성들의 여성관과 여성성의 억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에서 탈피하여 이치요 내면의 소외의식에 주목한다.

7) 萩原桂子 『にこりえ』 論—〈境界〉という物語、九州女子大学紀要 第37卷1号 p.45

8) 앞의 책 p.45

9) 「히구치 이치요의 소설에 나타난 의식의 전환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5년 박사학위논문으로 노미림은 이 논문을 통하여 봉건적 사족정신에서 근대 시민의식으로의 전환, 우는 여인의 의식에서 웃는 여인으로의 의식전환, 유전하는 광기로서의 의식전환을 다루면서 그것은 메이지 시대의 의식전환과 함께 이치요 자신의 의식전환이라고 논하고 있다.

10) 이현희 「樋口一葉문학의 여성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5

이치요의 소외의식이 어떠한 동기로 형성되었고 그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치요가 소외의식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치요의 전반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먼저, 이치요의 짧았던 25년 생애에서 소외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상류층 자제들이 모이는 하기노야(萩の舎)의 입문 후, 부에 대한 가난한 자의 열등감으로 시작된 소외의식, 작가가 도스이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비애, 아버지와 큰 오빠의 병물로 인한 여성 가장으로서의 삶, 경제적 빈곤으로 약혼자에게 파혼 당하는 아픈 경험, 이러한 일련의 비운의 삶을 경험하며, 이치요의 소외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흐린강』 제6장에서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에 있어 여러 평론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치요가 힘든 인생을 살아내며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치요가 형성해 낸 세계관 즉, 종교성이 짙은 불교적 속세관을 살펴보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삶의 고난에 직면한 이치요가 그 고난에 정면으로 응시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메이지라는 근대화의 격동기 속에서 자아실현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사회제도와 가난으로 신음하던 이웃을 향한 리얼리즘 문학의 도약이라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야마네 겐기치(山根賢吉)의 『一葉文學選 (和泉書院 1987)와 인용문의 번역은 박나미의 『히구치 이치요 작품선집』 (제이앤씨 2005) 번역본을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보완 하였음을 밝힌다.

## II. 본 론

### 1. 메이지시대와 이치요

#### 1) 시대적 배경

1853년, 미국의 페리선장이 이끄는 함대는 쇄국으로 단혀있던 일본을 새로운 근대 역사의 장으로 끌어 들인다. 일본은 탈아론(脫亞論)의 기치를 내걸고 서구의 문명을 급속하게 받아들이며 숭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충돌 속에서도 서구화 작업에 착수한다. 1868년, 7월 에도의 지명은 도쿄로, 9월 8일 연호 게이오(慶応)는 메이지(明治)로 바뀌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260여 년간 유지 되어 오던 막부를 종식시켰다. 서양을 모델로 하여 근대국가로 도약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판적봉환(版籍奉還)<sup>11)</sup>과 폐번치현(廢藩置縣)<sup>12)</sup>에 의한 중앙집권적 체제수립, 그리고 여성은 사회의 주체인 남성을 뒷받침해주고 에도시대 중기 이후 무가의 여성교육이었던 『온나다이가쿠(女大學)』가 기본이 되는 교육이었다.

1872년(메이지5년)에는 ‘학제’, 1873년에는 ‘징병령’ ‘지조개정조례(地租改正條例)<sup>13)</sup>를 공포하고 교육, 군사, 재정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신분제도의 폐지, 직업의 자유, 척산흥업(拓産興業)<sup>14)</sup>등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과 함께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힘을 기르지만 급속도로 진행된 근대화는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sup>15)</sup>

문학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초기의 일본 근대문학은 에도시대의 흐름을 이어받은 문학의 형태가 보이다가 ‘근대적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sup>16)</sup> 이것이 사실주의 문학<sup>17)</sup>이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 국수주의경향을 보인 의고전주의문학<sup>18)</sup>

11) 1869년에 행해진 지방제도개혁. 다이묘의 영주권을 천황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메이지 정부는 형식상 중앙집권이 되었다.

12) 1871년에 행해진 지방제도개혁으로 전국을 번을 부,현 제도를 개편하여 중앙집권화가 완전히 달성되었다.

13) 메이지 정부가 단행한 조세개혁으로 지조개정은 토지개혁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개혁으로 인해 일본에 처음으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었다.

14) 메이지 정부가 서양제국에 대항하여 산업자본주의 육성으로 국가의 근대화를 추진한 제도.

15) 윤혜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화』 궁미디어 2013 p.82

16) 앞의 책 p.82

이 도래한다.

청일전쟁 후 일본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반이 다져진다. 근대산업사회의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는 불가피한 귀결로서 인간을 자기소외의 상태로 몰아넣는 시스템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치요가 살다 간 메이지시대의 현실에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소외의 문제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문학작품과 모든 예술장르에서 인간 존재의 소외의식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있다. 현재 일본 현대문학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세계 여러 나라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소설들 역시 소외와 상실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동고동락하던 인간사회가 산업화에 들어가면서 원시농경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산과 소비, 잉여의 축적이라는 사이클 안에서 인간들은 피지배와 지배,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 낸다. 이치요가 살았던 격동의 메이지시대 역시 가부장제적인 일본 전통사상과 서양의 자유민권사상이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상의 혼란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구조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소외라는 개념을 낳았다.

일반적으로 소외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그리고 의미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하는 근대적 체험을 가리킨다. 인간 및 정신적 가치가 가치체계의 정상을 차지하는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데 항상 인간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금전과 권력 따위의 수단적 가치가 수단의 목적을 압도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되면 인간은 그 본연의 자리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19)

부국강병과 자유민권사상을 내세우면서도 메이지시대는 부권적 파시즘이 극에 달한 상태로 일본에서 가부장제도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지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억압을 정당한 것으로 제도화시켰던 표리부동한 혼란의 시대였다. 즉, 전근대 봉건적 사고와 서양의 근대적 사고가 충돌되면서 현실과 이상의 커

17) 사실주의는 권선징악이론 전통적인 문학관을 타파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으로 쓰보우치 쇼요가 『소설신수(小説神髓)』를 통해 사실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소개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근대문학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의의가 크다. 윤희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화』 궁미디어 2013 p.86

18) 근대문학이 서구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것이 의고전주의이다. 1885년 오자키 고요(尾崎紅葉 1867-1903) 등이 일본 최초의 문학결사인 켄유사를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하였지만 사실주의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윤희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일본문화』 궁미디어 2013 p.86

19) 노미림 「히구치 이치요 소설에 나타난 의식전환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6 p.53~54

다란 괴리를 낳았던 것이다. 즉, 표면적인 근대화, 문명화를 내세운 구호 이면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현실과 전근대적, 봉건적 사회 구조 안에서 속박 당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외침이 있었다. 급속한 서구문명과 사상의 유입은 일본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고, 청일전쟁 후 중국에서 받아들인 전쟁배상금은 일본 자본주의의 큰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대립각 속에서 메이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삶의 균형과 조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소외라는 시대가 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소외가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치요는 자신의 소외를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해 벗어나려는 의지의 여인이었으며, 또한 출세하고픈 야망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치요가 바라던 출세는 한 인간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아라는 개념이 자라나고 그에 따른 자아실현 욕구의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었던 지극히 소박하고 순수한 출세와 명예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점이 바로 일본사회의 구시대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시작된 ‘근대적 여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 2) 이치요의 삶

이치요는 이러한 모순적 시대상황 속에서 자기소외의식을 갖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치요는 소외의식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예리하면서도 여성적 섬세함으로 사회제도(신분과 자본주의)와 하층민 유곽 유녀들의 인생문제를 다루면서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극찬<sup>20)</sup>을 받으며 일본문단에 혜성처럼 여성작가로 등극을 하게 된다.

작가의 작품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이 어떤 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노리요시(則義)와 어머니 다키(瀧) 사이에서 태어난 이치요의 가정환경은 아버지가 막부시대에 갖은 방법과 수단으로 얻은 사족의 신분이었다. 원래는 농민출신이었던 노리요시는 어렵게 얻은 무사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으로 자녀들에게 엄하게 예의범절을 가르쳤고, 이치요 역시 무사집안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녔으며 10대 전후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았다. 이때가 이치요 일가족이 가장 풍요로운 생활을 한 시기로 4세부터 10세까지 도쿄 혼고(本郷)에서 살던 때이다.<sup>21)</sup> 14세에 하기노야(萩の舎)<sup>22)</sup>에 입문하여 와카, 서예, 고전문학을 배웠다. 하기노야에서 배운 왕조문학풍은 이치요의 초기작품에 여실이 나타나게 된다.

어릴 적부터 조숙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강해 5살에 공립 혼고(本郷)학교에 입학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 한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세카이초등학교(靑海小學校) 4학년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한다. 하지만 그 때 더 이상의 공부는 여자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어머니의 주장으로 공부를 더욱 하고 싶어했던 이치요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를 접어야만 했다.<sup>23)</sup> 자의식이 강하면서도 부모에게 효심이 있었던 이치요에게 배움을 중단하라는 어머니의 명령은 어린 이치요에게 상처와 미련을 남기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치요의 큰 오빠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망(怨望)은 이치요의 어린 마음속에 여자이기 때문에 수용해야만 하는 불공평, 분노, 소외

20) “われたとへ世の人に一葉崇拜の嘲を受けんまでも、此の人にまことの詩人と称をおくことを惜しまざるなり。” “나를 세상 사람들이 이치요를 숭배한다고 비웃을지라도, 그녀에게 진정한 시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좌지현 「樋口一葉의 여성관과 남성관」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5 재인용

21) 이정희 『일본 최초의 여성 직업 작가, 히구치 이치요』 한길사 2011 p.170

22) 歌塾으로 中島歌子에 의해 明治 10년에 설립. 이곳에서는 華族, 皇族 등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다녔으며 와카의 작법을 중심으로 古典, 書藝, 漢詩에 대한 교육이 행하여 졌다.

23) 榎林滉二 『新集近代の小説』 桜風社 1975 p.38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성되어 질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막부가 붕괴되면서, 사족(士族)의 신분이 박탈당하고 이치요가 16세 되던 해에 큰오빠가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설상가상으로 이치요에게 배움의 디딤돌이 되었던 아버지마저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여 이치요는 여성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구지책으로 작가의 길을 택하게 된다. 물론 이치요에게 문학적 소양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소설을 직업으로 여기고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이 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약혼하였던 시부야 사부로(澁谷三郎)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이치요는 남성에 대한 불신과 여성 가장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난의 명예를 후기의 소설 작품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된다.

이치요의 작품 속 여성의 공통적인 정서는 원망(恨み)과 아와레(あわれ)<sup>24)</sup>로 원망의 대상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성들과 경제적 궁핍이었다. 아와레의 정서는 이치요가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했던 사회적 인식과 차별에서 오는 비애였다. 그 원망과 아와레의 감정은 혼란한 메이지시대 안에서 이치요의 소외의식을 만들어 내는 배경이었다고 본다.

그녀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대로 이루지 못한 원망과 소외감의 그늘이 그녀의 조부와 부친에게도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치요의 아버지 노리요시는 고전(古典)에 대한 애정과 동경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보다는 금리적 이익에 더욱 왕성한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치요 어머니 다키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배속에 아이가 있는 다키를 데리고 야반도주의 형태로 에도(도쿄)로 상경하여 오직 사족의 신분을 얻기 위해 갖은 고생 끝에 막부시대의 사족신분을 얻게 되지만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막부가 종식되며 에도가 도쿄로 바뀌고 메이지시대라는 새로운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굴복하지 않고 노리요시는 말단 공무원의 자리를 얻고 금융업을 부업으로 하며 돈을 불리는데 모든 열정을 다 하지만 사업은 망하고 60세의 나이에 부채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노리요시의 삶의 목표는 신분상승과 재산축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막부가 붕괴되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

24) ‘あわれ’는 원래 사물에 접해서 일어나는 감동을 발하는 소리 즉 감동사로서, 처음에는 대상에의 찬탄의 기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가 점점 愛情·哀惜·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오키시(おかし)와 함께 일본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미유형으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작품부터 일본 중고시대의 모노가타리에서 나오는 일본인들의 주요한 정서이다. 신은경 『동아시아의 미학의 근원, 풍류』 보고서 1999 참조

이다.

그리고 이치요의 조부 히구치 하치자에몬(樋口八左衛門)의 경우는 신분은 낮았으나 어릴 적부터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현실사회에서 서민의 대표로서 앞장서고 정치가로의 역량과 열정이 흘러 넘쳤던 인물로 보인다. 그는 고향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어 ‘수리권(水利權)’을 둘러싼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감옥에 투옥을 당하는 등 원망과 소외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등졌다. 이치요의 할아버지는 이치요가 태어나기 전 일 년 전에 사망을 했지만 이치요는 주위에서 할아버지에 관한 여러 일들을 듣고 자랐다.<sup>25)</sup> 이러한 가계의 특별한 흐름에서 자라고 성장한 이치요는 당대 다른 여성작가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소재와 테마로 작품세계를 완성해 나간다. 일본 근대여류문학에서 이치요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재와 테마의 특수성에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중퇴 후, 나카지마 우타코(中島歌子)의 하기노야에 입문한 그녀는 미야케 가호(三宅花圃), 이토 나즈코(伊東夏子)와 함께 하기노야의 삼재(三才)로 칭해지면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sup>26)</sup> 가호와는 이때부터 라이벌이 되면서 서로의 작가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이치요의 경쟁자였던 가호는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당세서생기질(当世書生氣質)』을 읽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여학생 기질적 소설 『덤불속의 휘파람새(藪の鶯)』을 썼다. 이 작품은 새로운 여류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의 탄생이었다. 메이지 초기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신선한 여학생의 모습을 특색 있게 묘사해 내고 있다. 이것은 계몽운동과 공리를 위한 교육정책에 의한 지식여성의 출현이 초래한 결과였다.<sup>27)</sup>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갑작스런 집안의 몰락은 이치요가를 곤궁에 빠뜨리고 이치요는 여성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호가 『덤불속의 휘파람새』<sup>28)</sup>을 간행한 사실에 자극을 받아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을 정한다.

가호는 고등여학교를 두루 섭렵하고 유행의 최첨단을 걷던 상류층에 속한 인물이었다. 당시의 가호를 비롯한 여류문학의 분위기는 서양에서 급속하게 들

25) 山田有策 『作家論と作品論』至文堂 1955 p.30

26) 槇林滉二 『新集近代の小説』桜風社, 1975 p.38

27) 朴京薫 「近代日本女流文學の發生」『濟州大學校 論文集』第18集 p.376

28) 坪内逍遙의 『当世書生氣質』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의 원고료 33엔 20전이라는 원고료를 받는다.

어은 그리스도교적인 여성계몽, 자유민권사상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상류층 자제들이 당시 여류문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초등학교 중퇴라는 이치요에게 신분과 학력의 중요함을 부각시켰고 가난으로 인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이치요의 문학적 모티브를 갖게 한다. 다행히 하기노야에서 습득한 와카풍의 문장은 고전적이며 서정적인 것으로 가호의 생기발랄한 신시대 여학생의 분위기와는 사뭇 상반되는 문학세계였다.

이치요는 가호를 바라보며 무학무식을 타하며 현실에 처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이치요 현실의 문제인 가난이 가져다 준 환경은 가호가 쓸 수 없었던 세계, 즉 『키재기』 『흐린강』 과 같은 화류계 소설, 하층민의 삶과 애환을 과감하게 써내려감으로서 일약 여류 작가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sup>29)</sup>

이치요 문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공교육을 받은 기간이 오로지 초등교육 4년이었던 이치요에게 하기노야에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등의 고전작품의 학습은 이치요만의 독특한 특징 즉, 일본전통에 기반을 둔 리얼리즘을 꽃 피운 문학의 탄생이라는데 있을 것이다. 메이지 20년대의 의고전주의로서 일본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인정(人情)의 문학자적 길은 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전통사상인 즉, 유교적, 협객(俠客)풍의 관념, 더 나아가 노장(老莊)적, 불교적 관념을 아우르는 작가의 넓은 안목에 있다. 특히, 불교적 관념은 그녀의 인간과 문학의 중핵이 되고 있다. <sup>30)</sup>

이치요 인생에 커다란 상처와 소외라는 그늘을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치요의 인생에서 인연이었던 된 세 남자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노리요시가 사망하기 전 약혼자였던 시부야 사부로(澁谷三郎)가 노리요시가 부채를 남기고 죽게 되자 이치요와의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사부로는 당시 동경전문대학(現早稻田大學)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학생으로 이치요보다 6살 연상의 남자였다. 파혼의 이유가 여러 가지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노리요시 사후 이치요가의 금전적인 어려움과 이치요 어머니, 동생 등 세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치요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sup>31)</sup>

사부로의 집안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이치요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

29) 노미림 「히구치 이치요 소설에 나타난 의식전환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p.42

30) 関一良 『近代文學作品感想講座 第3卷』角川書店 1958 p.310

31) 和田芳恵 『日本近代文學大系 樋口一葉集』1986 p.12

상처의 내용은 남성에 대한 배신감과 결혼에 대한 불신으로 본고에서 다룬 작품에서도 역시 ‘결혼’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중에 이치요가 여러 작품을 통해 문단에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사부로로는 이치요에게 찾아와 다시 구혼을 하지만 자존심이 강했던 이치요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부로 이외에도 문학계, 출판계의 남자들이 와서 구혼을 하지만 이치요는 한사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핍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급료를 받는 사부로의 구혼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치요 문학의 저변에 흐르는 호탕하고 의협심이 강한 ‘협기(俠氣)의 정신’이라고 기무라 마사유키(木村眞佐幸)<sup>32)</sup>는 그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치요의 협기는 아버지와 엘리트 코스를 밟던 23세 큰 오빠의 연이은 죽음, 사부로의 약혼 파기 등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련의 불행으로 인한 현실과 사회에 대해 일종의 협기라는 문학적 모멘트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을 공부해 고위직을 두루 섭렵한 사부로로는 종종 안부를 물으며 이치요를 찾아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부가가 이치요에게 남긴 상처는 크게 남아 『키재기(たけくらべ)』에서 ‘신노(信如)’라는 인물로 이를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사부로로 인한 상처가 아물어 갈 때 이치요는 동생 구니의 친구 소개로 아사히신문 소설기자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sup>33)</sup> 밑에서 소설을 배우게 되는데 이치요는 첫 만남부터 도스이를 사랑하게 된다. 도스이는 당시 이치요보다 12살 연상으로 부인과는 사별한 남자였다. 도스이는 당시 조선의 부산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던 인물로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을 처음으로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하기도 하였고 갑신정변과 임오군란을 관심 있게 취재하기도 했다.

32) 木村眞佐幸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78 pp.70-71 참조

33)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0-1926: 소설가. 쓰시마노쿠니(対馬国) 이즈하라마치(厳原町), 현나가사키(長崎県) 이즈하라마치(厳原町)출신. 본명은 키요시(洌). 11살에 상경. 세키신바라(尺振八)의 공립학교에 다니며 좋은 직업을 얻지만 상사와 충돌하고 퇴사해서 17세에 교토에서 방랑. 1880년 8월 아사히신문에서 『오사카 사키가케(大阪魁)신문』을 창간했을 때 합류했었지만 폐간. 그 후 아버지가 의원을 하고 있던 한국의 부산으로 건너가 1883년에 결혼하지만 다음해에 사별. 1888년 동경이 아사히신문사의 기자가 되고, 다음해 2월 아사히신문에서 발표한 「농아자(聾啞子)로 호평을 받고 소설기자로서 활동을 한다. 조선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한국고전소설 『춘향전』 『구운몽』을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을 소개 하였다. 甲申政變, 壬午軍亂, 東學革命등 조선의 근대사회의 변동에 많은 관심 있게 보이며 일본 언론에 전하였고, 김옥균, 박영효와 특별한 교류가 있었다. 이치요는 도스이의 도움에 의해 「무사시노」에 처녀작 「야미자쿠라(闇桜)」이하 세 편의 소설을 발표하며 이치요와 연인의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이치요는 여자관계가 복잡한 그와 결별을 한다. 하지만 이치요는 도스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사랑했으며, 이치요의 소설에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하지만 파시즘적인 남성성으로 이치요의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여러 여자와 교제하는 타입의 자유분방한 남성이었다. 이러한 도스이에 대한 연정이 입소문으로 퍼져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 당시의 하기노야 친구들과 어머니의 반대로 이치요는 도스이와 결별을 하게 되지만 이치요가 남긴 일기에서 보면 이치요는 도스이를 쉽게 잊지는 못한다. 도스이와 결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도스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치요가 신파적이고 통속적인 도스이 문학의 한계와 절망을 느꼈다는 것과 도스이의 밑에서 계속 소설을 쓴다고 해도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치요의 정신세계 안에 남아 있던 봉건제적 사고 때문이었다. 그 봉건제적 사고란 도스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죄’라고 규정짓고 자신의 감정을 죄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어머니가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sup>34)</sup> 사부로 다음의 남자 도스이 역시 이치요의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치요는 연정의 대상이기도 했던 도스이 밑에서 처음으로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으며 그에 의해 『밤 벚꽃』를 『무사시노』에 발표하며 소설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1894년(메이지27년)는 이치요에게 있어 경제적 궁핍함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해였다.<sup>35)</sup>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치요는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당시 역학자였던 구사가 요시타카(久佐賀義孝)를 찾아가 이치요 자신의 앞날의 경제적 운세를 보아 달라고 하면서 찾아간다. 그리고 외국유학을 다녀오고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구사가에게 호감을 느낀 이치요는 경제적 원조를 요청한다. 부친이 어렵게 사족신분을 얻어 한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의협심이 강한 이치요가 당시 권력 있는 이에게 경제적 원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다. 이치요의 요청을 듣고 구사가가 첩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치요는 차마 첩이 되는 것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거부한다. 하지만 구사가와의 만남은 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치요와 구사가의 만남의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관계로 남아 버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치요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치요가 사부야와 도스이와는 다른 감정으로 구사가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존심이 강하고 반항심이 있었던 이치요의 성격과는 대

34) 塩田良平 『現代文學全集8』 筑摩書房 1961 p.410

35) 앞의 책 p.412

조되는 다른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이치요 인생의 세 남자는 전형적 과시증적 남성성을 가진 인물들로 감정적이고 섬세한 이치요를 현실세계로부터 소외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가장 결정적인 소외의식의 배경에는 열정과 희망을 갖고 하기노야(萩の舎)에 다니던 중에 열등감이 시작된다. 당시 하기노야를 다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화족과 황족의 상류층의 자제들로 와카발표회를 앞두고 발표회 당일 입을 기모노 품평회에 들뜨고 화려한 상류층의 문화를 접하고 큰 실망과 소외를 느낀 것을 이치요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세상에 몸을 담고 항상 보는 사람 중에서 단 한사람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하니 기분 나쁘게 이 세상에 나 혼자 태어난 느낌이다.”

かかる界に身を置きて明け暮れに見る人の一人も友といへるもなく我を知る者空しきをおもへばあやしう一人この世に生まれし心地ぞする 36)

「水の上」 일기의 한 부분이다. 부모와 형제들의 따뜻한 가족에 가운데 자라나야 할 아직은 어린 여성이 처한 곤란한 입장을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이다.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이치요의 소외되고 고독한 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치요가 남긴 일기가 가장 근접하게 이치요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닌가 싶다. 이치요의 일기는 그녀가 타계하기 전까지 쓰여 졌으며 일기의 주된 내용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가장으로서의 이치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기 전까지 도스이를 사랑한 이치요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사회의 물질적인 세태에 한탄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도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치요의 일기를 보자면 이치요가 반항적이고 험기적인 문학가이면서도 한편, 순박하게 자연을 사랑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사랑하는 연민의 인정적 소유자였음을 느낄 수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의 이치요연구가 작품연구보다 전기적 연구에 치우친 현상은 이치요가 남긴 일기에 의해서이다.

이치요가가 사족이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농민출신이었던 가문이었기에 하기

36) 菅総子・関礼子 『樋口一葉集』新日本古典文學大系 明治編』2001 p.485

노야에서는 평민조로 분리되어 취급당하고, 상류계층의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ものつつみの君’이라 불릴 정도로 내향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치요 문학의 반항정신은 이미 하기노야의 입문 당시부터 생겨난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치요가의 몰락은 상류계층에 대한 반감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sup>37)</sup>

결론적으로 이치요의 소외의식의 시작은 메이지라는 시대가 초래한 시대적 상황 속에 아버지의 병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하기노야의 상류층 계급과 비교의식에서 형성이 된다. 무엇보다 사랑했던 세 남자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아픔에서 한층 더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

37) 塩田良平 『一葉作風の展開』 筑摩書房 1961 참조

## 2. 작품분석과 등장인물

### 1) 작품분석

이시마루 아키코(石丸晶子)는 그의 저서에서 『흐린강』은 정말로 어려운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스케가와 노리요시(助川徳是)도 ‘정말로 알 수 없는 명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논하며 작품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흐린강』의 작품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sup>38)</sup>

『흐린강』은 총 8장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전체적으로 오리키 내면의 걱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5장과 6장을 최대의 정점으로 구성 되어있다. 1, 2, 3, 5, 6장의 각 장은 기쿠노이를 무대로 오리키의 작부로서 프로다운 외모와 내면의 걱정을 묘사, 설명하고 있고 4, 7장은 오리키를 사랑한 대가로 처해진 겐시치의 가난한 삶의 모습이 삽입되어있다. 종장인 8장에 이르러서는 주인공 오리키와 겐시치가 나란히 ‘흐린강’이라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작품세계를 완결하고 있다.

『흐린강(濁り江)』은 1895년(메이지28) 9월에 『문예구락부(文芸俱樂部)』<sup>39)</sup>에 발표된 400자 원고지용 약 52매의 짧은 소설이다. 본고의 이해를 돕고자 『흐린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곽의 유녀 오리키(お力)가 타자들의 시선과 내적인 방황으로 괴로워하며 삶의 애환을 호소해 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슬픈 내용의 소설이다. 『흐린강』을 쓸 무렵, 이치요가 살았던 마루야마 후쿠야마(丸山福山)라는 동네는 술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유곽촌(遊廓村)이었다. 유곽 안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처참한 유녀들의 생생한 모습을 이치요의 섬세하고 예리한 감수성으로 소설이라는 테두리 안에 애절한 하층민 삶을 담아낸다.

흐린강(濁り江)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마루야마 후쿠야마는 단절과 소외에 의해 거부되고 무시되는 박정한 세상살이에 체념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더 나은 삶과 인간다움의 삶을 갈망했던 한 인간(여자)의 애절한 호소가 작품 저변(底邊)에 흐르고 있다.

38) 石丸晶子 『日本の近代小説』東京大學出版部 1986 p.67

39) 1895年(明治28年)1月から1933年(昭和8年)1月まで博文館が出版した文芸雑誌。純文学として出発したが大正期以降大衆化した。創刊時は硯友社系の小説と豪華な挿畫とを『売り』した。その後幸田露伴・田山花袋・樋口一葉も小説を書いた。1907年(明治40年)頃から、講談や落語を載せるようになり、大正期に大衆向け娯楽雑誌の色彩を濃くした。http://ja.wikipedia.org/wiki/%E6%96%87%E%8A%

이와 마찬가지로 『흐린강(濁り江)』의 등장인물들은 이치요 자신과 자신의 부모, 형제,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이 작품 안에 투영되어 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치요 자신의 소외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자신의 문학의 근간을 형성해 나가는지 알 수 있다.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오리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성장한다. 세공 장식품을 잘 만들던 아버지는 어릴 적 난간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되어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고, 그마저 어머니가 죽자 일주기가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뜨고 만다. 어릴 적 가난을 체험하여 부모까지 잃은 오리키는 성인이 되어 기쿠노이(菊の井)에서 미모가 가장 출중하면서도 손님을 잘 끌어 들이는 유명한 유녀가 된다. 유녀라는 직업은 부모도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오리키가 당시 일본사회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인 겐시치(原七)와 연인이 되어 이불 집 사장으로 한 때 부유하게 살았던 겐시치를 빈털터리로 전락시킨다. 겐시치는 한 푼도 없는 거지와 같은 처지가 되자 자신을 회피하는 오리키를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며 불안한 가정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겐시치의 아내 오하츠(お初)는 자신과 가족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오리키를 마귀 같은 존재로 여기며 증오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지키며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 나간다.

오리키라고 불리는 여자는 통통하면서도 알맞게 살찐 키에 늘씬한 몸매. 감은 머리를 큰 시마다 모양으로 빗어 올리고 신와라를 꽂은 산뜻함. 목덜미에 바른 하얀 분이 무색할 정도로 타고난 흰 살결을 보라는 듯이 가슴까지 풀어헤치고, 빠끔빠끔 긴 곱방대를 피우며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닮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다행이다.

お力と呼ばれたるは中肉の背恰好すらりつとして洗ひ髪の大嶋田に新わらのさわやかさ、頸もと計の白紛も榮えなく見ゆる天然の色白をこれみよがしに乳のあたりまで胸くつろげて、烟草すばすば長烟管に立膝の無作法さも咎める人のなきこそよけれ、40)

40) 山根賢吉編 『一葉文學選』 和泉書院 1987 p.68

기쿠노이에서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오리키의 자태와 타고난 미모를 묘사하고 있다. 누가 봐도 술집의 아가씨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돈도 없고 집도 없게 된 겐시치를 오리키가 만나기 꺼려 할 즈음 어느 날 유키 도모노스케(結城朝之助)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난다. 범상치 않은 오리키의 언동에 유키는 무한한 관심을 보이며 오리키의 신상을 집요할 정도로 캐물으며 오리키를 만나기 위해 술집을 드나들게 된다. 유키는 중후한 풍채에 돈 씹씹이가 좋았고 금방 오리키는 유키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오리키는 자신 때문에 영락해진 겐시치를 깨끗하게 잊은 것도 아니었다. 유키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을 안 겐시치는 더욱 오리키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불안하던 그의 가정도 오리키가 겐시치 아들 다키치(太吉)에게 사준 카스텔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오하츠와 이혼하게 되면서 겐시치는 집도 가정도 없는 불우한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삶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겐시치는 오봉(お盆)<sup>41)</sup>이 끝나고 며칠 후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던 오리키를 산속 산사로 데리고 가 오리키를 죽이고, 자신도 할복자살함으로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마지막 8장에서 오리키가 겐시치와 함께 죽음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살고 싶었던 오리키가 겐시치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인지는 작품의 문맥상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마쓰자카 도시오와 마에다 아이의 경우는 죽음을 오리키가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키가 진짜로 사랑한 남자가 유키인지 겐시치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부유한 유키를 선택할 것인지 가난한 겐시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키의 갈등이 『호린강』 작품 안에 주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키가 괴로워하던 불운한 운명이라는 것은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람기’ 라고 오리키는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호린강』 내용에 있어 불분명하다거나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1) 우라본에(孟蘭盆會)의 준말로 음력 7월 15일

## 2) 등장인물의 역할

줄거리의 내용에서 밝혀 듯이 주인공 오리키, 그녀를 사랑한 겐시치, 겐시치의 아내 오하츠, 그리고 아들인 다키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작품에서 오리키의 가계의 이력에 대해 털어놓게 하는 매개인의 역할을 하는 유키 도모노스케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그리고 오리키의 숙세관으로 발목을 잡는 조부와 친부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리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겐시치의 역할은 단지 오리키와 연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겐시치에 의해 죽게 되기 전에도 오리키와 겐시치는 죽음의 세상을 동경하던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마에다 아이는 설명한다.<sup>42)</sup> 마에다 아이의 견해를 보자면 오리키의 죽음은 타살이 아닌 동반자살이 된다. 이 설명은 작품의 종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란히 두 개의 관이 나오는 대목에서 유추한 것이 되겠지만 마에다 아이는 다시 오리키의 죽음이 타살인지 동반자살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작품의 저변에 흐르는 내용의 전개로 봐서는 오리키는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친부와 조부에 의해 이어진 죽음의 세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나타나는 유키는 이치요가 연정을 품었던 나카라이도스이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유키가 30대의 남자라는 것, 그리고 가정이 없는 자유분방한 남자라는 것, 유곽에서 유녀들에게 돈을 잘 쓰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풍채에서 풍기는 분위기에 이치요가 첫 만남에서 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오리키 역시 금방 유키를 사랑하게 된다.

오리키의 아버지는 이치요의 작은 오빠인 도라노스케(虎之助)를 모델로 했으며 오리키의 조부는 이치요의 조부 히구치 하치자에몬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sup>43)</sup> 이치요의 작은 오빠는 큰 오빠 센타로와 이치요와는 달리 학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아버지와 마찰이 자주 있었고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되기 위해 출가를 해버려 호적상으로도 이치요가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겐시치의 아내 오하츠는 오리키가 작부라는 직업으로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는 전형적이고 평범한 전근대적 여성이다. 오하츠는 오리키의 직업을 멸시하며 자신의 가족을 가난으로 내몬 장본인으로 생각한다. 유녀라는 신분 때문에 오하츠는 오리키를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당시대 사람들의 시선을

42) 前田 愛 『にこ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1978 pp.194-197 참조

43) 石丸晶子 『日本の近代小説』 東京大學出版部 1986 p.45

내포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을 가난의 나라로 떨어지게 한 원수로 생각해 ‘도깨비’라는 호칭으로 오리키를 저주한다. 오하츠는 겐시치가 오리키와 사랑에 빠져 영락해져 있어도 자식인 다키치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는 점과 남자는 유곽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오하츠는 전근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겐시치와 오리키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겐시치의 아들인 다키치이다. 왜냐하면 어릴 적 가난의 멍에를 이고 자란 오리키는 자신 때문에 가난해진 겐시치의 가정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고, 7살 때 겪었던 가난의 경험은 오리키의 트라우마<sup>44)</sup>가 되어서 오리키의 시선이 어린 다키치에게 맞춰지면서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키치는 어릴 적 7살 오리키 자신의 분신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전체적 『흐린강』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겐시치와 유곽의 유녀 오리키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이지만 가난으로 상처 입은 7살의 오리키와 어린 다키치가 또 다른 관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작품 문맥상으로는 오리키가 유키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 저변에 흐르는 또 다른 이중적 내용은 오리키는 어린 다키치와 가난에 대한 상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난한 겐시치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릴 적 가난으로 회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뇌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육체로 전이되어 잦은 두통과 정신착란증 같은 증세를 보이게 된다. 오리키의 불행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리키는 유키와 같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바람기’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 이런 바람둥이 계집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ああ此様な浮氣者には誰れがしたと思召、<sup>46)</sup>

44) 큰 정신적 충격이나 공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마음의 상태. 정신적 외상

45) 前田 愛 『にこ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1978 p.221

46) 山根賢吉編 『一葉文學選』 和泉書院. 1987 p.97

한 남자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바람기가 삼대에 걸친 불운한 운명이라 한탄하고 있다.

“오리키, 재미 좋겠네. 풍채도 좋겠다, 돈도 잘 쓰겠다, 조만간 그 사람은 분명히 출세할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사모님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몸가짐을 조심해.

力ちゃんやお楽しみであらうね、男振はよし氣前はよし、今にあの方は出世をなさるに相違ない、其時はお前の事を奥様とでもいふのであらうに今つから少し氣をつけて、<sup>47)</sup>

이 본문은 동료 유녀가 오리키가 유키를 사랑하게 되자 유키와 결혼을 하면 사모님이 될 것이라고 부러운 듯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당시 유곽의 유녀들은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세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리키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아버지와 조부이다. 이들은 원망과 한을 품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계에 존재해 있으면서 오리키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오리키를 힘들게 한다. 그 연결의 고리는 조부와 친부의 불운한 운명이 자신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숙세관의 자각에 의한 것이다.

---

47)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 和泉書院 1987 p.77

### 3. 『흐린강』에 나타난 소외의식

#### 1) 유년시절의 빈곤에서 오는 소외의식

앞의 글에서도 말했듯이 『흐린강』에는 1895년 9월 20일 『문예구락부』에 발표된 소설로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이치요의 아픈 이야기가 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이치요가 부친 노리요시 7주기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쓰인 작품이다. 제사비용을 위해 이치요는 출판사 측에 선불을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한다. 집으로 돌아간 이치요는 그 해 7월 30일에 7장까지 급하게 완성하여 원고료를 받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다음 8월 20일 8장을 마무리 하여 다시 우편으로 원고를 보내고 작품을 완성한다. 이런 사정을 안고 탄생한 『흐린강』은 『たけくらべ(키재기)』 『十三夜(십삼야)』와 함께 이치요의 수작 중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흐린강(濁り江)』은 그 당시 가난한 하층민들과 신분이 천한 유녀들의 삶에 흐르는 ‘시궁창’을 뜻하며 세상과 허물 수 없는 차단의 공간으로서, 외부로 향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무참히 왜곡되고, 무시되는 소외의 벽이었다.

어머니는 부서진 한 아궁이에 찌그러진 냄비를 걸쳐 놓고, 나에게 쌀을 사오라고 했어요. 미소코시(된장을 거르는 조리)를 들고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손에 쥐고 짜전까지 기뻐하며 달려갔지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위가 몸에 스며들어 손발이 푹푹 얼어 버렸기 때문에 다섯 채 남짓 떨어진 집에 다 왔을 때 수채 뚜껑 얼음위에 미끄러져, 발을 헛디뎠다. 나동그라지는 바람에 들고 있던 쌀을 쏟고 말았어요. 널빤지 한 장이 빠져 나온 수채 뚜껑 틈으로 쌀이 죄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래는 더러운 시궁창 물이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쌀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母は欠けた一つ籠に破れ鍋かけて私に去る物を買ひに行けといふ、味噌こし下げて端たのお錢を手握つて米屋の門までは嬉しく駆けつけたれど、歸りには寒さの身にしみて手も足も龜かみたれば五六軒隔てし溝板の上の氷にすべり、足溜りなく轉ける機會に手の物を取落して、一枚はづれし溝板のひまよりざらざらと翻れ入れば、下は行水きたなき溝泥なり、幾度も覗いては見たれど、是れをば何として拾はれませう、48)

상기의 인용은 어린 오리키 가정의 가난한 현실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부서진 한 아궁이(欠けた一つ竈)’, ‘찌그러진 냄비(破れ鍋)’ 등의 세간이다. 이러한 가난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오리키에게 큰 상처의 경험이었다. 추운 겨울날 7살 밖에 되지 않은 오리키에게 저녁 짓을 쌀을 사오라고 어머니는 심부름을 시킨다. 쌀을 사오던 길 미끄러지는 바람에 쌀알들이 모두 시궁창 물에 빠지고 만다. 어린 나이였지만 오리키는 그 쌀이 없으면 식구가 모두 굶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울었지만 아무도 오리키를 위로해 주는 이도 나무라도 이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식구 모두 조용히 저녁을 걸러야만 했던 것이다. 추운 겨울 저녁밥을 지을 쌀을 시궁창으로 쏟아 버리고 식사를 걸러야 하는 현실은 단지 오리키 개인과 한 가족사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 후 더욱 궁핍해진 당시 일본사회의 전체 하층민의 처절한 가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7살의 빈곤에 대한 자각은 오리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가난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작가 이치요 역시 집안의 몰락으로 인한 빈곤의 경험은 자신의 문학적 모티브가 된다.

집을 보러 나갔다. 이번 집을 찾는데 생각한 것들은 무엇보다 가게자리로 보기 좋다면, 장소 위주로 본 게 아니었다. 월세가 저렴하고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골랐다. 그러다 보니 작은 집이 많았고 누추한 곳만 골라 다녔다. 거의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집들이 다 쓰러져 가는 채로 고만 고만 하게 늘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곳에도 격자문은 있고, 뜰에는 나무도 서 있고, 방에는 후스마도 있지만, 천장이 모두 검게 그을려 있어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다. 집 기둥은 휘고 낮았다. 처마들이 서로 붙어 늘어진 열채 집들은 부엌을 드나드는 곳이 서로 붙어 있었다. 그리고 다다미도 후스마도 없었다. 단지 집이라는 이름만 붙여진 곳이었다.

家さがしに出づ、此度のおもひたちは、もとより店つきの立派なるも願はず、場處のすぐれたるをものぞまず。料ひくくしいて人目にたつまじきあたりをとのさだめなれば、つとめて小家がちに、むさむさとせし處をのみ尋ぬ  
はやうより世に落はふれてたよりなくささなかなる處にのみすみ

48) 앞의 책 p.98

49) 檜林滉二 『新集近代の小説』 桜楓社 1975 p.45

けるものから猶門格子はかならずあり庭には木立あり家には床あるものとならひけりを天井といはばくろくすすけて仰ぐも憂く柱ゆがみゆかひく軒は軒につづき勝手もとは勝手元に並らびぬさるか上に大方は疊もなくふすまもなく唯家といふ名斗をかす成りけり<sup>50)</sup>

이 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집을 얻으려 다니면서 가족이 살 집을 둘러보고 그날 저녁에 쓴 일기이다. 한때 무사집안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았던 이치요는 어릴 적 살던 혼고의 동네와는 분위기도 다르고 오래된 지붕과 후스마도 없는 집을 둘러보며 불쾌감까지 느끼고 있다. 아마 작가 이치요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가난한 동네의 풍경을 기억해 내며 『흐린강』의 겐시치가 빈털터리로 전락해 살고 있던 집을 묘사해 내고 있는 것 같다.

동일하게 개발한 마을 변두리에서 야채가게와 이발소가 다닥다닥 처마를 맞대고 늘어서 있는 이 좁은 골목에는 비오는 날이면 우산도 퍼들기에 비좁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시궁창을 덮는 널빤지가 구멍이 나서 빠질 듯이 위험한 그 길 사이에 양쪽에 서 있는 판잣집이 있는데, 맨 끝 쪽 쓰레기통 옆의 아홉 자 두 칸집 문틀이 썩어 덧문은 늘 대충 달아둔 채이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문은 제대로 트여서 석자 남짓 되는 툃마루 앞에 잡초가 무성한 빈터에 푸른 차조기가 에워싸져 있고, 과꽃, 강낭콩 덩굴을 심고, 대나무로 거칠게 엮어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 오리키와 인연된 겐시치의 집이다

同じ新開の町はづれに八百屋と髪結床が庇合のやうな細露路、雨が降る日は傘もさされぬ窮屈さに、足もととては處々に溝板の落し穴あやふげなるを中にして、兩側に立てたる棟割長屋、突当りの芥溜わきに九尺二間の上り框朽ちて、雨戸はいつも不用心のたてつけ、流石に一方口にはあらで山の手の仕合は三尺斗の椽の先に草ぼうぼうの空地面それが端を少しが圍つて青紫蘇、えぞ菊、隠元豆の蔓などを竹のあら垣に搦ませたるがお力が處縁の源七が家なり、<sup>51)</sup>

50) 管聡子・関礼子 『樋口一葉集』岩波書店 2001 p.425

51)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83

앞의 본문은 이치요의 일기에서 “처마들이 서로 늘어선 열채 집들은 부엌을 드나드는 곳이 서로 붙어 있었다.(軒は軒につづき勝手もとは勝手元に並らびぬ)”의 풍경을 자신 때문에 가난해진 겐시치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인용한 듯하다. 이 대목도 이치요가 체험한 가난한 하층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치요의 일기를 보면 싼 집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도 마당이 없으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그 집을 얻지 않았다. 글을 쓰는 이치요에게 아무리 가난한 삶이어도 정서적 위안을 위해 마당이라는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치요는 겐시치의 가난한 집을 묘사하면서도 마당 안에 푸른 차조기와 과꽃, 강낭콩 덩굴을 심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치요의 가족과 그 당시 하층민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대변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자연의 생명력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유카타를 내놓으며 갈아입으라고 말하자 오비를 풀고 바람 통하는 곳에 있으니 아내는 칠이 벗겨지고 다리가 꼬덕거리는 낡은 밥상에 “당신 좋아하는 냉 두부예요.”라며 작은 사발에 두부를 담고 차조기 잎을 엮어 내오니, 향이 그득하다.

裕衣を出して、お着かへなさいましと言ふ、帯まきつけて風の透く處へゆけば、妻は能代の膳のはげかかりて足はよろめく古物に、お前の好きな冷奴にしましたとて小井に豆腐を浮かせて青紫蘇の香たかく持出せば、<sup>52)</sup>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겐시치를 위해 오하츠가 저녁을 준비하는 장면이다. “칠이 벗겨지고 다리가 낡은 밥상(能代の膳のはげかかりて足はよろめく古物)”이라는 대목이 겐시치 집안의 빈곤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성을 들여 냉 두부를 준비한 오하츠의 모습이 어린 다키치를 위해 어떻게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소박한 마음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아마 겐시치의 허름한 두 칸짜리 낡은 집과 소박하다 못해 가난해 보이는 밥상 역시 이치요의 가난한 일상 가운데서 경험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이치요는 이처럼 자신의 가난으로 인한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개

---

52) 앞의 책 p.85

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녀와 함께 가난한 이웃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계층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치요는 메이지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유형들과 다르게 표현되는 계층의 언어를 아속절충체<sup>53)</sup>라는 문체를 사용하며 삶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성공한 것이다.<sup>54)</sup> 여기에서 삶의 여러 가지 소리란 가난한 하층민과 신분이 낮은 유곽의 여인들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이 이치요가 근대적 작가로서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주된 이유이다. 이치요는 당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한 이웃 사회의 낮은 계층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러한 폭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이, 아버지가 부채를 남기고 병몰한 이후 겪어야 했던 가난의 경험에서 온 결과였던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근대적 작가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이치요에게 있어 원고료를 버는 것, 곧 자신의 작품과 금전적 등가교환(等價交換)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글쓰기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치요 자신이 메이지 20년대의 근대적 출판 기구의 성립, 전개에 따른 경제적 시스템의 구조를 일찍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치요의 개인적 상황으로 말한다면 원고료의 수입은 이치요의 절실한 요구였던 것이다.<sup>55)</sup> 이점이 이치요가 일본 최초의 여성 전업 작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주된 이유이다.

---

53) 지문은 문어체로 쓰고 회화는 구어문(속문)으로 쓰는 문체. 에도시대에 시작되어 명치시대의 전반기에 발달.

54) 荻原桂子 「樋口一葉『にこりえ』論 〈境界〉という物語」九州女子大学 第37巻 第1号 p.50

55) 管聡子 『女性作家 樋口一葉』岩波書店 2001 p.550

## 2) 타자의 시선에서 오는 소외

어느 날 겐시치의 아들이 오리키가 사준 카스텔라를 집으로 들고 온다. 오리키가 사주었다는 아들의 말에 오하츠는 분노하며 그 카스텔라를 집 앞 시궁창에 던져 버린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오리키의 어린 시절 쌀알들이 쏟아져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오하츠에 의해 버려진 카스텔라도 역시 겐시치의 집 시궁창으로 던져졌다는 것이다. 오리키가 겐시치의 아들에게 카스텔라를 사준 마음은 자신으로 인하여 겐시치 가정이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그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겐시치 아들 다키치를 어릴 적 자신의 분신으로 바라보며 가여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하츠는 오리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다.

“아무리 나이는 어리다고는 하지만 이 철없는 녀석아,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니냐! 아버지를 게으름뱅이로 만든 귀신이 아니니? 너 입을 옷이 없는 것도 우리 집이 없어진 것도 모두 그 귀신 같은 년이 한 짓이야. 물어뜯어도 시원치 않을 악마가 준 과자를 얻어먹어도 좋으냐고 지금 묻는 게 어이가 없구나? 더럽고 치사한 이런 과자를 집에 두는 것도 화가 난다. 버려라! 버려라!

ああ、年がゆかぬとて何たら譯の分らぬ子ぞ、あの姉さんは鬼ではないか、父さんを怠惰者にした鬼ではないか、お前の衣類のなくなつたも、お前に家のなくなつたも皆あの鬼めがした仕事、喰ひついても飽き足らぬ悪魔にお菓子を貰つた喰べても能かと聞くだけが情けない、汚い穢い此様な菓子、家へ置くのも腹がたつ、捨て仕舞な、捨て仕舞な<sup>56)</sup>

이 대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하츠가 오리키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귀신’ 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어린 다키치 역시 오리키를 귀신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해받지 못하고 타자의 시선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리키의 삶을 나타내는 이미지로서 ‘흐린강’의 제목을 이해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오리키가 7살 때 쌀알들을 쏟아 버린 시궁창은 가난으로서 세상과 소외를 상징하고 오하츠에 의해 카스텔라가 버려진 시궁창은 타인에게 오리키의 진심

56)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 和泉書院 1987 p.103

이 이해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사는 아이 보여요? 귀여운 아이로 네 살쯤 됐나. 저 아이가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아이랍니다. 저 어린 마음에도 나를 정말 밋게 생각하고 나를 귀신이라고 욕해요. 그렇게도 내가 나쁜 여자로 보이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숨지으며 견디기 힘들어 모습은 목소리에도 배어있다.

あの水菓子屋で桃を買ふ子がござんしよ、可愛らしき四つ計の、彼子が先刻の人のでござんす、あの小さな子心にもよく憎くいと思ふと見えて私の事をば鬼といひまする、まあ其様な悪者に見えまするかとて、空を見あげてホッと息をつくさま、堪へかねたる様子は五音の調子にあらはれぬ。<sup>57)</sup>

이 구절을 읽으면 어린 아이에게도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오리키의 서글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겐시치의 아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오리키의 마음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으로 인해 가난해진 어린 다키치를 가여워 하는 오리키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 쌀알들을 시궁창에 쏟아버려 굶주려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린 다키치를 동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쿠노이(菊の井)의 오리키인들 악마로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와 거짓뿐인 농지거리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情)이라고는 찾아 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남이 흘리는 눈물을 백년도 참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사내가 죽더라도 남의 일처럼 ‘안됐네! 하고 외면해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때론 슬픈 일, 무서운 일이 가슴에 사무쳐, 우는 것조차 남이 볼까 두려워 남 몰래 이층 도쿄노마에 몸을 던져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는 동료에게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菊の井のお力とても悪魔の生れ替りにはあるまじ、さる子細あればこそ此處の流れに落こんで嘘のありたけ串戯に其日を送つて、情けは吉野紙の薄物に、螢の光びつかりとする斗、人の涕は百年も我まんして、我ゆゑ死ぬる人のありとも御愁傷さまと脇を向くつらさ他處目の養ひつらめ、さりとも折ふしは悲しき事恐ろ

---

57) 앞의 책 p.83

しき事胸にたたまつて、泣くにも人目を恥れば、二階座敷の床の間に身を投ふして忍び音の憂き涕、これをば友朋輩にも洩らさじと包むに根生のしつかりした

58)

이 본문을 보면 유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오리키가 타인의 시선에 억압받을 수 밖에 없는 억울함이 표현되어 있다.

유녀에게 있어 직업적 생리라는 것은 자신의 외모와 거짓 웃음으로 손님들의 돈을 쓰게 하는데 있다. 한 때 이불 집 사장으로 부유하던 겐시치는 기쿠노이의 귀한 손님이었지만 유녀인 오리키에게 있어 이제 더 이상 직업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리키는 겐시치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영락해진 그를 동정하고 있으며 겐시치에 대한 미련과 연정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

작가는 이 대목에서 악마의 화신으로 오리키를 몰아세우지 않고 남몰래 울어야 하는 가련한 한 여성으로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양면적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리키를 이해해 주고 있다.

근성이 확실하고 기가 센 계집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나, 실은 건드리면 끊어져 버릴 것 같이 거미줄처럼 연약한 오리키라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根生のしつかりした、氣のつよい子といふ者あれど、障れば絶ゆる蜘蛛の糸のはかない處を知る人はなかりき、59)

메이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유곽의 유녀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치요는 곁으로 들어나는 유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오리키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사람이 흘리는 한 마디의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그 당시 사회는 착하고 인간적인 작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녀들에게 인간성의 상실에 대한 비판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생각하니 술장사 하는 여자니까 속은 이쪽이 죄지요” 라며 세상 사람들은 작부로부터 인간성을 박탈시키고 그녀들이 사는 세계를 ‘요괴’ 라고 칭하며,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차별하는 것이다.<sup>60)</sup> 라는 한길자의 말처럼 사회(남성)는 작

58) 앞의 책 pp.90-91

59) 앞의 책 p.91

부라는 직업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당시 유녀라는 신분은 사회 안에서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도 없는 조용한 곳, 자신의 마음도 그 어떤 것도 근심, 걱정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형편 없고 시시하고 재미없어. 무정하고 슬프고 허전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얽매어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것이 내 팔자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런 거야? 아, 싫다, 싫어!

何うしたなら人の聲も聞えない物の音もしない、靜かな、靜かな、自分の心もぼうつとして物思ひのない處へ行かれるであらう、つまらぬ、くだらぬ、面白くない、情けない悲しい心細い中に、何時まで私は止められて居るのかしら、これが一生か一生がこれか、あ、あ嫌だ嫌だ! 61)

유녀로서의 삶이 가져오는 양면적 인생의 태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한 인간으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인생의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소외된 자신의 삶에 대해 절규하는 오리키의 모습이다. 오리키의 독백에는 사람이 없는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을 갈망하고 있다.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곳은 기쿠노이의 현실이 아닌 허의 세계, 망자들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sup>62)</sup> 이 대목에서는 작가 이치요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이치요의 문학의 본질은 유교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불교적 색채가 더욱 강하다. 그것은 이치요의 청운의 꿈이 부친의 죽음에 의해 철저하게 좌절되고 1889년(메이지22년) 이후 이치요 가족의 생활은 바느질과 세탁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원고료가 전부였다. 정신적으로도 사부로에 배신을 시작해 그녀 인생의 고난은 연속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자신의 일기에서도 명백하게 말하는 것처럼 만년의 작품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신, 즉 속세에 걸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치요는 인생을 포기하고 회피하지 않고 그 고뇌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치요는 인생의 깨달음을 구하였다. 황망한 그녀의 시련의 인생 속에서 찾았던 깨달음은 바로 속세의 허무적인

60) 韓吉子 「히구치 이치요 『호린강(にごりえ)』論」 日語日文學研究 제81집 p.247

61) 山根賢吉編 『一葉文學選』和泉書院 1987 p.92

62) 前田 愛 『にごりえの世界』平凡社選書 1978 p.202

것을 초월하는 불교적인 경지였다.<sup>63)</sup>

이 부분, 역시 근대 일본문학에 있어 이치요의 문학사적인 또 다른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 이치요는 분명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수한 작가였다는 것이다.

마에다 아이씨는 이 대목을 놓고 오리키가 갈망하던 곳은 죽음의 세계라고 설명한다. 죽음의 세계에는 그녀의 조부와 아버지가 있으며 오리키 역시 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생과 사가 교착하는 부조리의 세계이며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오리키가 그 부조리의 세계를 자각할 때는 정신 착란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64)</sup>

유키 도모노스케는 지상의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가 있는 곳은 죽음의 세계가 아닌 밝은 세상이다. 오리키와 겐시치는 어둠, 즉 죽음의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며 오리키는 밝은 세상을 향해 즉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세계를 자각한 데서 오는 혼동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

63) 関一良 『近代文學作品感想講座 第3卷』 角川書店 1958 참조

64) 前田愛 『にご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1978 p.200

### 3) 혈통의 유전에서 오는 소외의식

『흐린강』은 유곽의 유녀 오리키의 인생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소외된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작품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의 범주를 넘어서는 한 가계(家系)의 운명을 말하며 유곽의 풍경과 유녀의 인생을 중심으로 하는 작부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 넓은 메이지 현실의 모순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 이치요은 현실의 고뇌와 문제를 불교적인 운명론적 숙세관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운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대한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숙세는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기인해 오는 것이다. 따라서 절망적인 체념과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운명론과는 달리 긍정적인 수용과 희망이 함께 하는 것이 숙세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5)</sup>

일본인들에게 있어 불교적 숙세관이란 개인의 생명조차 일부는 사후의 세계로, 나머지 일부는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계의식과 가문의식으로 완성된 ‘이에(家)’<sup>66)</sup> 개념은 본래 개인의 모습을 기본으로 성립된 인과와 윤회사상 또한 주로 현세 속에서 특히 영고성쇠(榮枯盛衰)와 혈통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불교의 숙세관은 이에 관념이 형성됨에 따라 그 의미 한편에 혈통을 중심으로 한 유전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하며 나아가 이것은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われ)와 더불어 왕조문학의 심층을 흐르는 커다란 줄기가 되었다.<sup>67)</sup> 하기노야에서 고전의 학습은 『겐지모노가타리』 등의 왕조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이치요에게 숙세관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 자신의 정신세계 및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sup>68)</sup>

큰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 아버지 노리요시의 죽음으로 황망한 심정을 추수리기 전에 1894년 사촌동생인 고타로의 죽음은 이치요에게 자신의 가계에 흐르는 죽음을 그림자를 자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잇따른 죽음은 자

65) 서은경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숙세관』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p.19

66) 가정, 가족 전체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 에도시대에 발달한 무사계급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에제도는 메이지 민법에 의해 채용된 가족제도이며, 천황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 더욱 가까운 범위의 사람들 중 호주와 가족으로 한 집에 속하여, 호주에게 집의 모든 통솔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의 구성원은 모두 이에의 권력자 ‘호주’에게 절대 복종하게끔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1947년 전후 개혁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호주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단위가 형성되도록 개혁되었다.

67) 서은경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숙세관』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p.16

68) 앞의 책 p.23

신 역시 죽음 앞에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했고, 이치요는 그 불길한 예감 그대로 큰 오빠 센타로와 같은 폐결핵으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타계한 것이다.

『흐린강』의 주인공 오리키의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자신의 뜻을 세워 학문에 정진해 갔지만, 기존 정권으로부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썼다며 강압적으로 저지당해서 단식을 하다가 죽는다. 이치요의 할아버지 역시 기존의 정권과 대립함으로써 탄압을 받고, 사회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어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치요를 포함한 삼대의 불운한 삶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이런 바람둥이 계집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삼대가 잘못 태어나, 아버님의 일생도 비참했어요.”하며 눈물을 떨군다.

ああ此様な浮氣者には誰れがしたと思召、三代伝はつての出来そこね、親父が一生もかなしい事でござんしたとてほろりとするに、<sup>69)</sup>

작품 속 아버지의 삶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됨에 따라 출세로부터 낙오된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아버지의 애교 없는 성격으로 인하여 금장식 기술은 세상에 빛을 바라는 일 없이 묻히고 말았다. 할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의 고독하고 불운한 인생을 통해서 오리키는 사회와 현실의 부당함과 소외감을 깊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겐시치와의 사랑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리키는 유키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바람기와 자신이 유곽에서 몸을 파는 유녀가 된 것이 아버지에게 이어 받은 불운한 인생을 유키에게 하소연하며 자신의 가계의 이력을 소상히 털어 놓는다.

“아버지는 장인(職人)이고, 할아버지는 한자를 잘 읽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결국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아무짝에도 없는 휴지 같은 책을 만들었는데, 판금(販禁)을 당하자, 허가 받지 못했다고 단식하다 돌아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열여섯이 되던 해부터 뜻한 바가 있어 태생은 비천해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셨으나 육십이 넘을 때까지 이루어 놓은 일은 없고, 결국에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 지금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다며 아버지가 늘 그

69)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97

렇게 한탄하던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 왔어요. 아버지는 세 살 때 뿔마루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자, 남들 앞에서는 것도 싫다며 집에서 장식물을 만들었는데 자존심만 강하고 불임성이 없어 밀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親父は職人、祖父は四角な字をば讀んだ人でござんす、つまりは私のやうな氣違ひで世に益のない反古紙をこしらへしに、版をばお上から止められたとやら、ゆるられぬとかに斷食して死んださうに御座んす、十六の年から思ふ事があつて、生れも賤しい身であつたれど一念に修業して六十にあまるまで仕出來したる事なく、終は人の物笑ひに今では名を知る人もなしとて父が常住歎いたを子供の頃より聞知つて居りました、私の父といふは三つの歳に椽から落て片足あやしき風になりたれば人中に立まじるも嫌やとて居職に飾の金物をこしらへましたれど、氣位たかくて人愛のなければ最負にしてくれる人もなく、70)

오리키는 유키에게 자신의 조부와 친부의 불행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본문만 본다면 오리키 집안의 어두운 내력만 느껴지지만 오리키는 조부, 친부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는 대목도 찾아 볼 수 있다.

“부모님 자랑 같지만, 세공 하나는 정말로 명인이셨어요(親なれば褒めるでは無けれど細工は誠に名人と言ふても宜い人で御座んした)”처럼 오리키는 학문에 정진하셨지만 당대에 인정을 못 받은 할아버지나 장애인으로 사교성이 없었지만 세공품을 만드는 아버지의 기술만큼은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숙세관에 이어지는 운명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는 지금 유곽에서 몸을 파는 다른 창녀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오리키의 자아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호린강』에서 유전으로 인한 운명으로 소외된 삼대를 현실의 이치요의 삼대와 비교해 보겠다. 이치요의 할아버지 히구치 하치자에몬(樋口八左衛門)은 작품 속 오리키의 조부와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고, 작품 속 아버지는 이치요의 아버지와 작은 오빠를 같이 투영해 묘사해내고 있다. 큰 오빠는 엘리트 출신으로 23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둘째 오빠는 도자기를 만드는 명인의 제자가 되어 출가해 버려서 호적상으로는 이치요가에 아

70)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97

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치요의 할아버지 히구치 하치자이몬은 학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1851년 가뭄에 부당한 자금의 유용에 분개하여 일반 농민의 선두에 서서 당시 대관(代官)에게 소원을 하고 서민의 대표로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장본인이다. 권위에 투쟁하는 반골정신의 소유자이다.<sup>71)</sup>

할아버지의 좌절된 인생을 보고 어떻게든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고생을 거듭하다 허무히 떠난 아버지와 그들의 피를 이어 받아 열아홉의 나이로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일가를 떠안고 살아야 했던 이치요는 삼대에 걸친 운명적 숙세관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sup>72)</sup>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내 신세를 도무지 모르겠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대로 살자. 인정 없는 것, 의리 없는 것, 그런 말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몸뚱어리에 이런 일을 하는 이상, 나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 보통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는 것이 정말 잘못이야.

ゑゑ何うなりとも勝手になれ、勝手になれ、私には以上考へたとて私の身の行き方は分からぬなれば分らぬないに菊の井のお力を通してゆかう、人情しらず義理しらずか其様な事も思ふまい、思ふたとて何うなる物ぞ、此様な業体で、此様な宿世で、何うしたからとて人並みでは無いに相違なければ、人並の事を考へて苦勞する丈間違ひであろ、<sup>73)</sup>

이 대목을 보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체념적인 오리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보통의 여자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위로하고 있다. 오리키는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바람기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운한 운명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숙세관적 수용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실의 삶, 지옥 같은 세계,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기쿠노이로 회귀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념적 자기위로를 하고 있다.

71) 松板俊夫 『樋口一葉の人と作品』 角川書店 p.7

72) 서은경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숙세관』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p.33

73) 山根賢吉編 『一葉文学選』 和泉書院 1987 pp.92-93

#### 4) 소외의식의 극복양상

현실의 이치요는 생계수단으로서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하지만 아마도 이치요는 작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이치요는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직면했던 현실과 자신 내면의 소외의식을 극복하고자 자신이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소설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다. 그러면 작품 속 오리키는 어떠한 방식으로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을까.

혈통으로 의한 불운한 운명을 자각하고 있던 오리키. 앞부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일본인들의 속세관은 체념적 속세관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 속세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오리키 역시 체념적 운명자각이 아니라 긍정적 미래를 위한 갈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유키는 오리키에게 “출세를 바라고 있군(出世を望むな)” 이 한마디로 오리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리고 도스이가 이치요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오리키와 소통을 단절시키며 작품에서 사라진다.

오리키가 유키의 “출세를 바라고 있군” 이라는 말에 유키와 소통의 희망이 무너져 내린 것은 오리키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은밀한 소망을 타인에게 들킨 부끄러움 때문이다. 그것은 오리키의 강렬한 출세의식이 유키에 의해 지적되어진 것에 대한 당혹스러우면서도 자신의 출세의식이 유키에 의해 조롱당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유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 즉 낮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오리키의 은밀한 희망이 체념되게 되는 것이다. 74)

오리키는 아마도 재력이 있는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 어찌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녀 즉 하층민의 삶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내 사랑은 산골짜기 시냇물의 외나무다리를 건너려 하니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하지만 건너야 하는데...’ 하고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아!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샤미센을 옆에 두고 일어선다.

我戀は細谷川の丸木橋わたるにや怖し渡らねばと謳ひかけしが、何をか思ひ出したやうにああ私は一寸無礼をします、御免なさいよとて三味線を

74) 前田愛 『にご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pp.212-213

置いて立つに、75)

술집에서 손님과 동료들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하다가 뭉가가 생각난 듯 자리를 박차고 가게를 뛰쳐나오는 장면이다. 노래의 가사를 보면 외나무다리를 건너자니 무섭다고 하면서도 건너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출세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면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운한 운명이 자신을 괴롭히며 오리키의 분열 상태를 노랫말로 암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리키에 있어 불운한 운명이란 한 남자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자각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오리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두려워 한 것은 자신의 바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작부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꺼려하거나 진지하게 상대해 주지 않는 남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작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이었다.<sup>76)</sup>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난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해. 아버지도 헛디더 떨어졌고, 할아버지도 같은 운명이었어. 어차피 대대로 이어진 업보를 짊어지고, 할 일을 못 다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지.’

한심한 것은 이런 날 어느 누구 하나 가엾게 생각해주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다. 슬프다고 하면 일하기 싫으냐며 몰아세운다.

仕方がない矢張り私も丸木橋をば渡らずはなるまい、父さんも踏かへして落てお仕舞なされ、祖父さんも同じ事であつたといふ、何うで幾代もの恨みを背負て出た私なれば爲る丈の事はしなければ死んでも死なれぬのであらう、情けないとても誰れも哀れと思ふてくる人はあるまじく、悲しいと言へば商賣がらを嫌ふかと一ト口に言はれて仕舞 77)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하는 오리키를 가엾게 여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오리키 자신만이 건너야 하는 고독한 운명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대목의 해석과 의미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연구되

75) 山根賢吉編『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91

76) 한길자 「히구치 이치요의 호린강(にこりえ)論」 日語日文學研究 제81집 p.238

77) 山根賢吉編『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92

고 있다. 이 외나무다리에 대하여 일본 내 연구가 분분한 것은 오리키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가에 분명한 작가의 의도가 테스트 안에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sup>78)</sup> 이 지적은 오리키의 내면의 문제 즉 소외의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오리키의 의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품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마루 아키코(石丸晶子)는 그의 저서 『日本近代の小説』<sup>79)</sup>에서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해석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기술하면서 자신의 의견 또한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 마에다 아이씨의 견해는 괴로운 현실인 기쿠노이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종의 현실도피를 의미한다. 죽음의 세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며 자신과 겐시치는 죽음의 세계에 처음부터 속한 자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마쓰자카 도시오의 견해로는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상인데 그것은 나라의 나아갈 길을 구상하고 사회변혁을 꾀하는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 외나무다리를 건넌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의 불균형, 즉 부의 올바른 균형을 위한 사회 운동적 사고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츠카다 미츠에(塚田滿江)의 견해로서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고, 그것을 타파해서 스스로 출세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유키와의 결혼 등 현세적인 오리키의 신분상승지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정부 겐시치와의 옛사랑을 저버리는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갈등의 중심에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은 오리키의 아버지 노리요시가 도쿄로 상경해 사족의 신분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네 번째 가모우 요시로우(蒲生芳郎)는 세상과 등을 지고 죽은 조부의 한이 자신에게 이어져 몇 대에 걸친 불운의 업을 등에 진 오리키의 내면의 걱정이라고 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sup>80)</sup> 이 견해는 오리키 내면의 걱정의 감정이 정신 병리학적인 문제, 즉 정신착란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대목으로 유추하여 서은경<sup>81)</sup>은 이치요의 숙세관이라는 논문에서 삼대에

78) 한길자 「히구치 이치요의 흐린강(にこりえ)론」 日語日文學研究 제81집 2012 p.235 참조

79) 石丸晶子 『日本の近代小説』 東京大學出版部 1986 pp. 70~71

80) 앞의 책 p.73

81)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숙세관(宿世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서은경은 이치요의 흐린강을 불교적 숙세관으로 논하면서 본래 전세(前世)와 현세(現世), 그리고 내세(來世)의 삼세에 걸친 과거의 운명관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숙세라는 의미의 한편에 혈통에 따른 유전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치요는 자신의 현세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로 이어진 유전

서 혈통으로 유전 된 숙세관으로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삼대에 걸친 숙세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네 번째 가모우 요시로우의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운명의 숙세관을 불교적 사상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고 있다. 이치요 자신의 굴곡진 삶은 그녀가 24세에 이르러 이미 『徒然草(츠레즈레구사)』에 몰두할 만큼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것은 남자를 대하는 이치요의 마음이 체관(諦觀)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sup>82)</sup>

본고에서는 세 번째 츠카다 미츠에의 해석에 근접하게 동의한다. 오리키는 유키와 결혼을 함으로써 출세를 지향했으며 사회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소의의식을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유키의 ‘출세를 바라는 군’이라는 말로 오리키와 더 이상의 진전이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8장에서 겐시치와 오리키는 나란히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음의 세계로 떠나간다.

그렇다면 오리키에게 있어 “출세를 바라는 군”이라는 유키의 질문에 왜 상처를 받고 소통을 하지 못하였을까? 호감을 갖고 있던 유키와 왜 적극적인 결혼의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였을까? 이 대목에서는 다시 서은경이 주장하였던 숙세관(운명론) 해석이 필요하다.

이시마루 아키코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며 자신의 견해로서는 오리키의 고뇌는 형이상학적 고뇌로 그것은 자기 자신과 인생을 향하여 묻는 번민하는 영혼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sup>83)</sup> 이 견해는 오리키가 외나무다리를 건넌다는 것에 대해 단정적인 해석보다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오키기의 혼란된 심적 상태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죽음의 세계에서 현실 도피적으로 해석한 마에다 아이 역시 단순한 해석으로 그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세계’, ‘현실을 뒤엎는 반세계’로서 오리키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다.<sup>84)</sup>

분명히 오리키는 유키와의 결혼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인간다운 삶을 살길 원하면서도 삼대에 걸쳐 흐르는 저주의 운명을 스스로가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점이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라고 하는 의미의 불분명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자의 의견은 어떤 해석이 옳다는 주장보다 작

(流轉)을 통한 숙세(宿世)를 수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82) 塩田良平 『現代文学全集8』 筑摩書房 p.412  
 83) 石丸晶子 『日本近代の小説』 東京大学出版会 1975 p.73  
 84) 前田愛 『にぎ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1978 p.197

품이 깊이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마에다 아이의 주장처럼 『호린강』의 형이상학적인 부조리의 세계가 오리키의 갈등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작품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오리키는 자신이 평범한 작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돈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오리키의 은밀한 소망이었다. 하지만 유키를 만나고도 내면의 갈등은 계속된다. 또한 영락해진 겐시치를 만나려 하지 않으면서도 겐시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대에 걸친 숙세 즉, 오리키에게는 한 남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바람기(浮氣) 때문이라고 오리키는 자각함으로서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다.

『호린강』의 종장인 8장은 내용의 분량이 짙막하면서도 오봉이 끝난 며칠 후의 정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며 오리키와 겐시치의 비극적 사랑의 결말을 묘사하며 작품을 끝낸다.

오봉이 지난 며칠 후, 제등불이 얼마 남지 않다 허전하고 쓸쓸한 무렵, 신개척지 동네를 빠져나가는 관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가마상여, 다른 하나는 메는 상여였다. 가마상여는 기쿠노이의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나갔다.

魂祭り過ぎて幾日、まだ盆提燈のかけ薄淋しき頃、新開の町を出し棺二つあり、一つは駕にて一つはさし担ぎにて、駕は菊の井の隠居處よりしのびやかに出ぬ、<sup>85)</sup>

『호린강』의 시간적 배경은 오봉을 전후한 그리 길지 않는 기간이었다. 마에다 아이는 오봉의 시간적 배경과 제등불의 시각적인 묘사는 오리키와 겐시치의 죽음을 위한 제사(まつり)라는 작가의 의도라고 말하고 있다.<sup>86)</sup>

결론적으로는 오리키의 내면이 자신이 건너야 하는 외나무다리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오리키의 죽음이 겐시치에 의한 타살인지 오리키가 동의하여 자신이 선택한 죽음인지도 작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작품의 테스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오리키를 잊지 못하고 결국 아내와 아들까지 잃게 되어 거지신체가 된 겐시치에 의해 죽음을 당한 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겐시치는 가정도 잃었고 가진 재산

85) 山根賢吉編『一葉文学選』和泉書院 1987 p.107

86) 前田 愛『にごりえの世界』平凡社選書 1978 p.194

도 모두 잃어버린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리키가 원망스럽지만 오리키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벼랑 끝에 선 겐시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사랑하는 오리키가 다른 남자의 연인이 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란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오리키 역시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유한 남자의 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해진 겐시치를 선택해 어린 시절의 빈곤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갈등의 기로에 서 있던 것이다.

오리키의 의지(출세, 결혼)가 겐시치의 타살에 의해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작품 전체의 흐름상의 의미로는 확실히 단정 짓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작품의 문맥 그대로의 이해와 작품 저변에 흐르는 심층적인 이해가 병행하기 때문이다. 이치요의 목적이 겐시치에 의해 좌절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치요가 그런 오리키는 삶을 긍정하며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으며 인간적인 삶을 살기위해 죽는 순간까지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다. 마지막 8장의 본문을 보면,

“찢어진 상의, 뺨에 스친 상처, 목 줄기에 찢린 상처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니 분명히 도망가려다가 당한 걸 거야. 그런데 사내는 단번에 할복했다는구먼. 이불장사 할 때는 그렇게 까지 안 봤는데, 할복을 했다고 하니 죽은 걸로 치자면 멋지게 죽은 거 아니겠어? 기쿠노이는 큰 손해를 봤지?

切られたは後袈裟、頬先のかすり疵、頸筋の突疵など色々あれども、たしかに逃げる處を遣られたに相違ない、引かへて男は美事な切腹、蒲団やの時代から左のみの男と思はなんだがあれこそは死花、ゑらさうに見えたといふ、何にしる菊の井は大損であらう、87)

오리키와 겐시치의 상여가 동네를 빠져나가는 풍경을 보고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웃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찢어진 상의, 뺨에 스친 상처, 목 줄기에 찢린 상처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니(切られたは後袈裟、頬先のかすり疵、頸筋突疵など色々あれども、)” 이라는 대목을 보자면

---

87) 앞의 책 p.108

같이 죽음을 선택하자던 겐시치의 칼에 죽음을 피하려던 오리키의 필사적인 모습이 남아있다. 많은 평론가들은 오리키가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작가는 이 문장으로 오리키가 죽음의 직전에 처절하게 저항했던 모습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기쿠노이에서 가장 잘 나가던 유녀의 죽음에 기쿠노이만 손해를 봤다는 뒷이야기가 죽은 오리키를 더욱 애잔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고뇌하면서 오리키가 건너고자 했던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한다’의 해석은 오리키가 자신의 숙세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불운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 했던 의지의 인물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고싶다.

앞에서 언급 한 외나무다리의 해석을 놓고 논고는 오리키가 소외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로서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오리키는 작품 속에서 겐시치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작품을 막을 내린다. 이 부분 역시 동반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소설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 겐시치에 의한 타살에 무게를 두는 게 온당하지만 작품 전체적 흐름을 이해한다면 오리키는 자신의 집안에서 내려온 운명을 직시하여 타의든 자의든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가 이치요 역시 죽기 전 기적의 14개월이라는 기간에 이치요의 걸작들을 만들어 낸 힘도 자신의 큰 오빠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어렴풋이 예감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의 죽음의 대한 이치요의 자각은 짧은 14개월이란 기간에 완성도 높은 후기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어려서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실패한 소외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해하였던 오리키. 하지만 오리키는 세상 안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하였던 것처럼 어두운 운명 또한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오리키의 의지(출세, 결혼)가 겐시치의 타살에 의해 관철되지 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작품 전체의 흐름상의 의미로는 확실히 단정 짓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마에다 아이와 이시마루 아키코의 주장처럼 형이상학적이면서, 비합리적 세계, 죽음과 생이 교착하는 혼란의 경계를 넘나들던 오리키는 자신의 온전한 선택이 아닌 불운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 것이다.

### Ⅲ. 결 론

이상으로 이치요의 작품 『호린강』에 나오는 주인공 오리키를 통하여 이치요의 소외의식을 살펴보았다. 이치요는 짧은 25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처한 소외의식을 극복하여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출세를 지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치요의 개인적 소망과 달리 작품 속 주인공 오리키는 메이지시대라는 격동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관철하지 못하는 인물도 그려졌다. 그것은 이치요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좌절의 투영이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했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우선 서론에서는 이치요의 연구가 일본에서는 작품분석보다 인물의 전기(伝記)적 연구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이치요가 일본의 화폐 5천엔권의 초상화가 실리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치요의 후기작품 중심으로 작가론보다 작품분석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론에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치요 자신의 소외의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문학작품으로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오리키와 유키 도모노스케, 겐시치, 오하츠, 다키치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분석을 해 보았다.

이치요의 소외의식의 시작은 메이지라는 시대가 초래한 시대적 상황 속에 아버지와 큰오빠의 연이은 죽음, 그에 따른 경제적 빈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기노야의 상류층 자제들과의 열등감과 저항심에서도 형성된다. 무엇보다 사랑했던 남성들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아픔이 소외의식을 한층 더 굳어지게 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호린강』의 오리키는 시대를 조금 앞서 자아를 발견하는 주인공이지만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는 조부와 아버지의 어두운 운명으로 자신의 꿈을 관철하지 못하고 사회 최하층민의 유녀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소외의 인물이었다. 오리키의 소외의 시작인 어린 시절 가난의 경험은 한 개인의 아픈 상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시작과 맞물린 당시 일본사회의 최하층민의 빈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유녀라는 직업은 오리키가 자신마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며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외로운 인간을 만들어 버린다. 그것은 타자들에 의해 오리키의 인정적인 마음이 무참히 왜곡되며 인간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의식을 만들어 내게 한다. 그러한 소외의 오리키와 유곽의 여자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첩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바라던 출세를 이루지 못하고 오리키는 죽음을 맞이한다. 오리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한 삼대의 어두운 운명이었다. 학문에 조예가 있던 할아버지는 당시 정권에 억압에 자신이 책이 판금이 되자 정권과 대립하다 죽은 인물이다. 아버지 역시 타고난 장인이었지만 어릴 적 난간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의 외곬적인 성격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삼대에 걸친 어두운 운명은 오리키에게까지 드리워져 오리키의 삶을 괴로움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 속 상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 이치요와 이치요의 조부, 이치요의 둘째 오빠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는 이치요도 역시 가족의 내력에 의한 숙세의 운명에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숙세관이라는 어두운 운명을 자각했던 주인공 오리키는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녀들의 조상들처럼 가슴에 한을 품고 세상을 등져야 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다. 돈은 위력은 사회 안에서 커다란 권력이 되어 버려 사람들은 배금주의 사상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본사회의 미풍양속과 인간이 가지는 존재가치를 물질주의에게 빼앗기게 된다. 사회 하층민들은 금력과 신분의 차에서 오는 소외를 안고 살아야 하는 혼란의 시대에 이치요는 자신이 처한 가난과 궁핍,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해야 했던 질곡의 삶을 살아 내야만 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작가 이치요도 작중 인물 오리키는 자신이 이루려 했던 삶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오리키를 통해서 당시 메이지시대의 한(恨) 많은 여성의 애환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 여성들의 아픔을 이치요는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치요의 작품 속 여자주인공들은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 구도덕에 대한 반발, 투쟁의 적극적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당시의 새롭게 유행하던 ‘하층사회’의 운동적 사고를 하고 있었고 그 결의는 『호린강』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지

향하며 메이지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치요가 아버지와 큰 오빠의 병몰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흐린강』과 같은 작품을 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하기노야에서 상류층 자제들 속에서 신분의 격차로 인한 열등감과 절망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사회 하층민의 상실과 소외의 감정을 이해해 내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을까. ‘고난은 인간을 정금처럼 단련시킨다’라는 말을 이치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 말한다면 이치요는 일본문학의 어느 문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다. 그 이유는 이치요가 직면했던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서며 개인의 고달픈 인생문제를 넘어서 이치요가 속한 공동체 즉, 하층민의 삶을 이해한 것이고,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현실적인 행동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후기 작품들은 하기노야에서 배운 고전적이고 고풍적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의 빈곤과 근대화의 모순을 직시하며 해결해 내고자 했던 리얼리즘의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한데 있다고 본다.

갈등과 모순의 메이지시대에 혜성처럼 일본문단에 등장한 최초의 여성전업작가 이치요는 일본근대문학의 한 획을 긋고 밝아오는 샛별처럼 반짝이다 황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살다간 비애를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의 인생은 많은 독자들의 가슴속에 또 다른 별이 되어 다시 빛나고 있다.

## 참고문헌

### 【텍스트】

- 山根賢吉 『一葉文學選』 和泉書院 1987  
박나미 『히구치 이치요 작품선집』 제이앤씨 2005

### 1. 국내문헌

####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신은경 『동아시아의 미학, 풍류』 보고사 1999  
이정희 『일본 최초의 여성 직업작가』 한길사 2011  
이와부치 히로코(2008) 『처음 배우는 일본문학여성사』 어문학사 2008  
윤혜영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일본문학』 궁미디어 2013  
조혜숙 『일본근대여성의 시대인식』 제이앤씨 2010  
히구치 이치요, 박영선 옮김 『치열하게 피는 꽃 이치요』 북스토리 2005

#### 【참고논문】

- 권경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모래의 여자(砂の女)』의 소외의식연구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남희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일기에 나타난 연애관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미선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女性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지혜 「소외의식과 소통 부재의 표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2008

- 김정선 「樋口一葉 문학속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미림 「히구치 이치요 소설에 나타난 의식전환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경훈 「幸田露伴一考察-一葉文學への反影をめぐって-」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8輯 1983
- \_\_\_\_\_ 「近代日本女流文學の發生-前期の形成をめぐって-」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19輯 1984
- \_\_\_\_\_ 「明治女流文學における人間性の解放」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20輯 1985
- 서은경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의 숙세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은실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니고리에』의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현주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 작품속에 나타난 원망의 정서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현희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문학의 여성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장안순 「樋口一葉의 悲哀의 本質」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회 제4호 1981
- 정유경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의 『십삼야(十三夜)』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좌지현 「樋口一葉의 여성관과 남성관」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길자 「樋口一葉 『호린강(にごりえ)』論」 日語日文學研究 제81집 2012

## 2. 일본문헌

### 【단행본】

- 有精堂編輯部 『日本文學史事典近代編』 有精堂 1994
- 石丸晶子 『日本近代の小説』 東京大學出版部 1986
- 菅總子 『樋口一葉集』 岩波書店 2001

- 木村眞佐行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1978
- 楨林滉二 『新集近代の小説』 櫻楓社 1975
- 坂倉良一 『近代の短篇小説』 櫻楓社 1978
- 佐藤 勝 『近代小説研究作品・資料』 秀英出版 1969
- 關礼子 『十九世紀作家樋口一葉の作品世界』 岩波書店 2001
- 藤井公明 『續樋口一葉研究』 櫻楓社 1984
- 塩田良平 『明治女流作家論』 文泉堂出版社 1966
- \_\_\_\_\_ 『北村透谷・樋口一葉集』 筑摩書房編 1961
- 瀬沼夏葉 『明治女流文學集2』 筑摩書房 1965
- 田澤稻舟 『現代日本文學大系5』 筑摩書房 1972
- 長谷川 泉 外 『解釋と鑑賞 紅葉・露伴・一葉』 至文堂 1978
- 榎本正純 『涙の美學』 新典社新書46 2009
- 山田有策 『作家論と作品論』 至文堂 1955
- 前田愛 外 『樋口一葉集』 民族文化 1982
- \_\_\_\_\_ 『にぎりえの世界』 平凡社選書 1978
- 松坂俊夫 『鑑賞日本文學2 樋口一葉』 角川書店 1982
- \_\_\_\_\_ 『鑑賞日本現代文學』 角川書店 1982
- 三好行雄・竹盛天雄 『近代文學2(明治文學の展開) 有斐閣双書 1947
- \_\_\_\_\_ 『日本文學全史5 近代』 學燈社 1978
- 宮城道子 『近代女性史』 現代書館 1984
- 和田芳恵 『日本近代文學大系 樋口一葉集』 1986

## 【참고논문】

- 金丸千雪 「樋口一葉の『十三夜』におけるセンチメンタリズム」 九州女子大學  
紀要, 第35卷 第3号 1998
- 木元伸祐 「樋口一葉作品にみる女性像」 日本文學誌要 第47号
- 荻原桂子 「樋口一葉『にぎりえ』論-〈境界〉という物語」 九州女子大學紀要第  
37卷 第1号 2000
- 塚本章子 「樋口一葉号『たけくらべ』論」 廣島大學近代文學研究會  
近代文學試論33 1995

<영문초록>

Study on *Troubled Waters* Written by Ichiyō Higuchi

Gang, Yun-gyeong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upervising Professor Kim, Seong-bong

This thesis examines Ichiyō's sense of isolation by studying *Troubled Waters* written by Ichiyō Higuchi, who is regarded as the first full-time female author in Japanese modern literature. When the piece was being written, the Japanese Society had the Meiji government and rapidly adopted Western civilization; the abrupt opening of the country causing conflict with the deep-rooted patriarchal system of Japan's ancient feudalism, creating a hug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In the stream of the times, the writer made her comet-like official debut into Japan's literary world by writing the novel *Troubled Waters*, which deals with the sense of isolation from the poverty and the disparity in social status she experienced through Oriki, the heroine of the novel.

The introduction not only looks into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with regard to Ichiyō Higuchi, which focused on the oppression of femininity but also introduces the objective of writing this paper under the theme of the sense of isolation, breaking from the oppression of femininity and previous research.

The body covers the background of the Meiji period as well as the events and figures that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isolation in the author's life in detail. It also summarizes the composition and plot of *Troubled Waters* by analyzing the novel and the roles of the characters.

In addition, the body contemplates Ichiyō's sense of isolation in three dimensions, classifying it into three categories: one from the experience of

poverty the author had in her childhood; another sense of isolation Oriki suffers from as she lives a dual life as a geisha and is conscious of how others think of her; and the last one from the heredity in her blood which the unfortunate fate of her grandfather and father stem from. Ichiyō Higuchi regarded her destiny in the viewpoint of a previous life where everything she underwent from the heredity in her blood, and such a perspective toward her life exerted a great influence when she established her own Buddhist world view in her later life.

Lastly, in order to contemplate how she was trying to overcome such a sense of isolation, the thesis not only presents the opinions of a number of critics through the line saying "I am crossing the single-log bridge" in Chapter 6 of the novel, but also shares the opinion of the writer of this thesis. It is possible to find the meaning this work contains in that the sense of isolation from the experience of poverty the main character Oriki had and the disparity in social standing is an individual's painful wound as well as represents the poverty of the lowest class of the then Japanese society interlocked with the beginning of capitalism. Ichiyō got over her sense of isolation from a short 4 year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and succeeded in becoming the best female writer of the time by addressing the subjects and themes contemporary woman authors who received higher education of the mainstream were not able to cover with the education she had on Japanese classic literature in the Hagino. The literary achievement she accomplished is her turning her eyes to the lives of the lowest class in her neighboring communities, going beyond a single individual's personal troubles, instead confronting her ordeals and the hardships of her reality. Moreover, she lived a life in which she took a realistic action of writing for the betterment of their lives. This paper wraps up, focusing on the fact that her later works break from old-fashioned sentimentalism, looks squarely at the poverty of reality as well as the contradiction of modernization, and then makes a leap into the new area of realism.